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49호 (주체 제23101호) 주체99(2010)년 5월 29일 (토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21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 합동과학기술대학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대렬을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대학이 최근년간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자들을 보시었다.

그이께서는 이 성과는 조선의 기술인재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재능을 보여주고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새로운 기술지식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연구기관들, 대학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또한 대학에서 교육의 내용과 질을 부단히 혁신하여야 하며 특히 과학기술교육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이 나라의 국제방송과 홍콩 방송 위성TV방송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소리방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통상기계연합기업을 현지지도하시었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기술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는데 대하여, 통상기계연합기업소와 같은 수많은 기계공장들의 힘있는 뒤받침이 있으므로 하여 나라의 경제력을 급속히 강화할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하여 전하였다.

라오스통신, 핀란드 코린포름통신사 인터넷잡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흥단군을 현지지도하시 소식, 합동과학기술대학을 현지지도하시 소식, 해상시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 소식을 보도하였다.

한편 브라질신문 《오라도 보보》 13일부와 네발신문 《아르판》 21일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식방문하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특집하였다.

본사기자

사설 모두다 떨어져나 사회주의농촌을 적극 지원하자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대고조의 복소리를 높이 울리며 농업생산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전당, 전군, 전민이 한결같이 떨어져나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업혁명을 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에 대한 사업을 강화하여 국가적보장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식량문제를 해결하는것은 현시기 인민생활향상에서 나서는 제1차적인 요구이며 더는 미룰수 없는 초미의 과제이다. 식량문제를 풀어야 인민생활을 안정화시키고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수 있다. 알곡생산에 대고조전군의 승리를 위한 지름길이다.

오늘 우리 당은 농업전선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으로 내세우고 전당, 전군, 전민이 농촌을 힘있게 지원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다. 여기에는 올해 어떻게 하나 자체의 힘으로 거머잡고 식량문제를 풀고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드림없는 의지가 새겨져있다. 우리는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전당, 전군, 전민이 농업전선에 모든 힘을 총동원, 총집중하는것은 령도자와 사상과 뜻을 함께 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당이 결심한 무조건 해고야만 있는 철석의 의지의 파시르 된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농촌지원사업에 한결같이 떨어져나오서 자기 벽을 울리며 전민의 강의를 울리는 우리의 일심단결의 의지를 더욱 힘있게 파시하여야 한다.

지금 시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반동들은 사회주의의보루로 굳건히 서아 불패의 위용을 떨치고있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제봉쇄책동을 막아내며 단호하게 대응하고있다. 그러나 적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알곡생산으로 대고조승리의 불꽃을 열여제끼려는 우리 인민의 결사의 의지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천백배로 분출되고있다. 우리는 올해에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하며 그러자면 농촌지원사업에 한사발같이 떨어져나오야 한다. 쌀은 곧 사회주의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떨어져나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여야 알곡생산은 높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다져지고 농업생산은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려지고있다. 토지문제를 물론 제가 빛나게 해결되는데 이어 얼마전에는 남포가스화대건설이 성과적으로 완공되어 주체비료가 폭포처럼 쏟아지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온 나라가 떨어져나 농촌에 힘을 집중하자면 하던 우리는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할수 있다.

모든 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농촌지원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업에 주인관계를 참가하여야 한다.

온 나라가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는것은 당과 수령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투쟁이다. 오늘 당과 수령에 대한 총신실성과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은 알곡생산을 늘이는데서 높이 발휘되어야 한다.

하루빨리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풀어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서 제일 잘살게 하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활짝 꽃피우기 위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각오와 열정을 농촌지원사업에서 뚜렷이 나타내야 한다. 오늘날에는 농업전선을 최전선으로 여기고 한달의 난날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하여 아글라글 애쓰는

사람, 농촌에 한줌의 거름이라도 더 보태주고 농사일을 앞설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참된 혁명가이며 국가이다. 누구나 농촌지원사업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협동벌마대에 구슬땀을 쏟아야 한다.

농촌을 물질기술적으로 적극 지원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농촌지원에서 기본은 농촌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보장사업을 잘하는것이다. 농촌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보장사업을 강화하지 않으면서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없으며 농업은 공업화, 현대화, 과학화할수 없다.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경제지도기관 일군들은 전기와 연유, 화학비료와 농약, 트랙토르, 농기계부속품, 박막을 비롯하여 농민에 필요한 영농설비, 자재를 철저히 계획화하고 무조건 그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비료이자 곧 쌀이다. 토지와 물, 종자문제가 풀린 조건에서 비료를 원만히 대주기만 하면 알곡생산은 결정적으로 늘일수 있다. 남포정련화학련합기업소에서 비료생산을 늘이는 수준에서 계속 정상화하며 흉년비료련합기업소에서 현대화를 다그치면서 비료생산을 힘있게 내밀도록 하여야 한다. 린비료와 가리비료, 미량원소비료를 생산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야 한다.

농촌에 트랙토르와 트랙도르부속품을 대주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야 한다. 금성트랙도르공장에서 성능높은 트랙도르를 많이 생산하도록 하며 트랙도르부속품공장들과 기계공장들에서 맡겨진 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여 농촌에 부속품들을 원만히 대주어야 한다.

성, 중앙기관 일군들은 올해에 농촌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풀려는 당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자기앞에 맡겨진 영농물자보장과제를 무조건 제때에 수행하여야 한다. 모든 공장, 기업소

들은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농촌을 물질기술적으로 적극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실속있게 세우고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농사에 필요한 영농기구와 자재들을 보내주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을 로력적으로 힘껏 지원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지금과 같이 바쁜 농사철에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내밀면서도 더 많은 로력이 농촌지원사업에 동원될수 있도록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농촌지원사업에 한결같이 떨어져나오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가능한 모든 노력을 농촌지원에 펴야 한다.

농촌지원사업에서도 인민군대의 모범을 적극 따라배우는데서 중요하다.

인민군대에서는 바쁜 영농시기마다 사회주의농촌에 달려나가 농사일을 성실성있게 도와주고 힘있는 선전선동동무로서 협동벌을 들었다놓으며 농장원들을 고무해주고있다. 그리고 인민들에게 사소한 부당도 거치지 않고 농장의 살림살이를 물심방문으로 적극 도와주고있다.

우리는 인민군인들처럼 누구나 농사일에 적극 떨어져나오며 모내기하고 밭갈이를 하나 매도 인민군대의 투쟁기풍과 일본색로 앞설고 주인관계를 하여야 한다. 서로 돕고 이고는 집단주의기풍을 높이 발휘하고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농촌지원자들은 농장원들속에서 정치사업, 과학기술적보급사업, 기동예술훈대활동을 활발히 벌려 농촌에서의 사상, 기술, 문화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모두다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농촌지원사업에 한사발같이 떨어져나오야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함으로써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인 비약을 이룩해나가자.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된 조선

국제사회계가 높이 칭송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인민들의 정신력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조국수호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가 국제사회계에서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감보자 톨스토이당 공보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일령도자의 령도방식을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의 위력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언제나 사상을 중시하신다,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이 그의 지론이라고 언급하였다.

나이제리안신문 《뉴 나이제리언》은 조선의 김정일령도자는 투철한 사상론자, 사상을 중시하는 정치가라고 칭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사상중시치로 사회주의건설을 이끌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전략전술과 로선을 작성하시고 사상의 위력으로 그것을 실현해 나가신다.

그이께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강령을 제시하시었다.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었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나가는 속에 조선사회는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되고 조선인민은 자주적이며 힘있는 혁명적인 인민으로 준비되었다.

메히코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는 별첨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라의 정치사상전진을 반석같이 다지시었다.

그이께서 인민군인들을 투철한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키우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고

군인들속에서 발휘되는 강의하고 숭고한 사상정신적품모를 전민이 따라배우도록 하시므로써 조선에서 가장 엄격한 혁명속에서도 군민의 무한대한 사상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위업을 드림없이 전진시켜나갈수 있었다.

그이께서 사상의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끌어가신다. 그의 령도밑에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기적을 창조하는 조선인민은 반드시 가까운 년간에 강성대국위업실현이라는 경이적인 현실을 안아올것이다.

본사기자

멸적의 기세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어랑천발전소 건설자들과, 청진도끼종축장 종업원들의 열기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어랑천발전소 건설자들과 청진도끼종축장 종업원들의 열기모임이 27일과 28일에 진행되었다.

어랑천발전소 건설자들의 열기모임에서는 총서형 합동복도 당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발전소건설취회 현장책임자 박천봉, 청진읍건설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김길용, 부령수력발전건설사업소 지체인 채광, 도청년동력대 련단장 리영범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랑천2호발전소는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만큼 먼 후대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건설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내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는 어랑천발전소 건설자들과, 청년동맹대원들에게 비약의 나배를 열어준 고무적기회로 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일군들과 건설자들과, 청년동맹대원들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발전소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건설자들과 청년동맹대원들은 혁명적군인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언제 공사와 물질공공크리든지, 철관로조립작업을 일정대로 밀고나가면서 취수경, 발전기실

건축공사를 앞당겨 끝내며 발전소부지정리와 방수로굴착공사, 장식입히기 등을 다그쳐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천원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건설물의 질을 높이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하나까지 기술혁신인들과 공병들을 널리 받아들이고 철근과 세멘트를 비롯한 자재보장을 앞세워 공사실적을 부쩍 올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일군들은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두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며 완강한 실천으로 대중을 이끌어 나갔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청진도끼종축장 종업원들의 열기모임에서는 합동복도농촌경리위원회 초급관리서 황윤식의 보고에 이어 종축장지배인

백성철, 당세포비서 김창걸, 작업반장 임규파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종축장의 사양공들이 책임성을 높이고 인공물판과 자연물판을 비롯한 먹이기술을 더 많이 조성하여 도끼머리를 충분히 마련하것과 함께 수의방역체계를 철저히 세워 도끼기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발전소건설과 축산물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들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펼치는 편지개체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대고조전투쟁의 새 소식

상반년계획 앞당겨 수행

합흥제사장에서

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일제기 품소 공장에 찾아오시어 조사공들의 작업모습을 보아주시며 천여버의 따뜻한 사랑을 안겨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그려보며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년초부터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직장별,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밀러마다에서 자랑한 위훈을 창조하였다.

조사2직장과 청년조사직장이 혁신의 앞장에서 내달리었다. 청년조사직장의 1, 2, 3작업반, 자건작업반원들은 기대관리를 잘하고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수리작업반원들은 기대물체매에 수리함으로써 만가동을 보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

다. 조사2직장 1, 2, 3작업반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말수기를 비롯한 설비들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서로 돕고 이고는 기공을 발휘하여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직장별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켜 제품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동력직장의 로동자들도 생산현장들에 중기를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그들은 기술혁신안, 합리화안을 받아들여 설비를 절약하고 중기관보수와 관리를 잘하여 현행생산을 믿음직하게 보장하였다. 공무종합작업반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부속되는 자재를 자재로 마련하면서 기대수리에 필요한 부속품체매에 생산보장하였다.

특파기자 박동석

모내기를 적기에 끝낼 목표로

열두삼천리별의 농촌들에서

열두삼천리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멸적의 기세드높이 모내기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공동사업과 공동주호를 피뎌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벌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하여 총공격전을 두세차례 벌려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모내기는 한해농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영농공정입니다.》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는 열두삼천리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한해농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영농공정인 모내기전투에서 높은 정신력을 발휘해나가도록 높은 일군들을 현

지에 내려보내어 조직정치사업을 막렬있게 진행하게 하였다.

당위원회와 지도밑에 동농촌경리위원회의 일군들은 열두삼천리별의 농촌들에 달려나가 모내기를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하도록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이끌어주고있다.

일군들의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숙천군, 문덕군, 안주시, 평원군을 비롯한 열두삼천리별의 농촌들에서 모내기전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많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숙천군인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인민생활향상의 주공전선을 지켜선 높은 책임감을 간직하고 모내기전투에 한사발같이 떨쳐나섰다. 일군들은 알곡생산에서 큰

몹을 차지하고있는 농장들이 나가 남자와 지대적특성에 맞게 일제계획을 면밀하게 세우도록 하고 모내기전투에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고 있다.

운정, 금풍, 검흥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줄대같이 일한 모둠을 키워낸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포전마다에서 모내는기계의 발동소리를 높이 울려가고있다.

문덕군인의 일군들은 인민생활향상시키는데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되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그러하여 립서, 흥요, 흥반, 인흥 등 군인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모내기를 힘있게 다그

쳐 많은 면적에 모를 내는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안주시의 일군들은 모판관리로부터 모내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들이 치차처럼 맞물려 진행되도록 하고있다.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일군들은 덩성, 원풍, 운송협동농장에 비롯한 협동농장들에 내려가 벼모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종자별특성에 맞게 모판관리를 잘하도록 조직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평원군에서도 삼봉협동농장을 비롯한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이 앞장서서 도목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두고 모내기전투를 힘있게 다그쳐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원수들에 대한 불라는 적개심을 안고 부속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림학락 찍음

라 오 르 라 우 등 불 아

작사 차영도
작곡 안정호

람만적으로 (♩ = 116)



1. 산바람이 휘파람을 부는 희천에 타오른다우 등불 건설장의 불



장군님 지켜주신 심장 불길 온 나라 예로 원의 불이 되었다 - 바



치 - 자피 늙은 청춘의 열정 부강조국 걸치는 길에 - 우



리 - 의 젊음은 치솟는 불길 폭풍우도 두렵지 않다 - 더 세



차 게 더 세 차 게 - 라 오 르 - 라 우 등 불 아

2. 산악처럼 일떠서는 언제와 함께 3. 밝아오는 강성대국 그날 그러며

타오른다 우등불 건설장의 불 타오른다 우등불 건설장의 불

장군님 지켜주신 위훈의 불길 장군님 지켜주신 승리의 불길

이 땅우에 또다시 번을 부른다 우리 가는 앞길에 영원 하리라

(후렴) (후렴)

송고한 뜻 가슴에 새기고

은 천 군 인 민 병 원 에 서

은천군민병원은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뜨겁게 새겨져있는 병원이다.

수십년전 은천군을 찾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민주의와 품평어려 공기가 좋고 바다바람도 막을수 있는 아늑한 지대에 병원터전을 잡아주시었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당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병원을 잘 꾸릴때 대하여서와 의료활동의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며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절세위인들의 높은 뜻을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사는 병원의 의료일군들은 무상치료제의 인민적책이 인민들의 생활에 더 잘 미치게 하기 위해 불같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가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불모는 인민적인 보건제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은천군민병원에서는 지난날 절세위인들의 송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병원을 현대적으로 꾸리며 치료사업에서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 인민들의 건강증

진에 적극 이바지해왔다. 혁명적대고조의 불결이 새차게 타오른 지난해만 하여도 이곳 의료일군들은 병원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보다 훌륭히 꾸리며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완비하기 위한 사업과 치료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군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속에 이곳 의료일군들은 자체의 힘으로 병원을 현시기 당의 의도와 요구에 맞는 인민의 치료봉사까지도 훌륭히 꾸리며 사경에 처한 한 노동자를 위해 자기들의 피부를 서슴없이 때내고 긴장한 치료전투를 벌여 완쾌시킨것을 비롯하여 뜨거운 사랑과 정성으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함으로써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여왔다.

인민생활향상의 해인 올해에 병원의 의료일군들은 이룩한 성과에 태대하여 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인민적책이 인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더 잘 미치게 하자면 주관적요망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을 명실한 제정철동무를 비롯한 병원일군들은 의료일군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선진적인 힘을 쏟고있다. 모든 의사, 간호원들이 당창건 65돐을 한가지 이상의 경의고안과 발명을 할 것을 결의해나오며 자질향상계획을 대담하게 세우고 분발

하여 이악하게 노력하고있다.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병원에서는 우수한 의료일군들을 선발하여 전문대학사원과 상급병원들에 보내어 기술실무수준을 높도록 하고있다.

실력판정은 자질향상열의를 더욱 높여주기 위한 좋은 방도로 되고있다. 병원에서는 월에 1차씩 실력판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게시하고 있는데 나날이 경쟁열의가 높아지고있다. 누구나 잠시간을 리용하여 책을 보고 학습하는 기풍이 병원에 차넘치고있으며 그 과정에 의료일군들의 기술실무수준은 올라가게 되어 모든 전문과목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들을 상급병원에서 보내지 않고 자체로 치료하고있다.

수십년전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병원사업에서 기본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사업을 잘하는것이라고 가르쳐주시었다.

병원에서는 의료일군들이 환자들을 친절속의 정으로 극진히 돌보아주고 환자치료에 자기 모른것을 다 바치는 기풍이 차넘치고있다.

몇달전 뜻밖의 일로 심한 화상을 입고 최종중상대에 빠진 한 어린이가 병원에 실려왔을 때였다. 소생할 가망이 거의 없는 환자를 두고 이곳 의료일군들은 주저한것이 아니라 무조건 살려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치료전투에 달려나갔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모두가 최종중환자의 담당의사, 담당간호원이 되었다. 병원의 일군들을 비롯하여 의사, 간호원들이 두차례에 걸쳐 자기들의 피부를 때내어 환자에게 이식해 주었으며 서로의 지혜와 열정을 합쳐가며 치료전투를 벌여 끝내 환자를 소생시켰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뜨거운 사랑과 정성으로 환자들을 소생시킨 의료일군들을 적극 내세워 주고 정성경험발표회를 자주 조직하여 모두가 선진시대 보건일군의 자질과 품모를 갖추어나가도록 하고있다.

필요한 약품을 자체로 생산보장하여 치료사업을 보다 원만히 진행하는것은 올해 병원에서 내세운 중요한 목표의 하나이다.

병원에서는 이미 그 어떤 조건에서도 의약품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져놓았으며 수시가지의 의약품 생산하여 치료에 방사업에 리용하고있다. 성과에 자만을 모르는 이곳 의료일군들은 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더 많은 약품을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이악하게 벌려나가고있다.

당의 보건정책방향을 위한 당의 보건정책방향을 위한 투쟁에 불타는 열정과 헌신적 노력을 바쳐가고있는 이런 참된 보건일군들이 있어 내 조국 땅 그 어디서나 인민을 위한 절세위인들의 송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어내고있다. **본사기자 강진형**

행복이 넘치는 사회주의농촌마을

연안군 수봉협동농장 제4작업반을 찾아서

연안에서 황주쪽으로 얼마간 가느라면 마치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마을이 나타난다. 이곳이 바로 연안군 수봉협동농장 제4작업반이다.

우리는 얼마전 10여년간 농사도 잘 지어왔으며 자체의 힘으로 마을을 무동토대로 꾸려놓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이 작업반을 찾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촌건설에서 혁신을 일으켜 모든 농촌마을들을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고 풍기도 아름다운 사회주의농경으로 훌륭히 꾸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번듯하게 잘 꾸려지고 광영에 키울은 가로수가 줄지어 설레이는 작업반의 도에 들어서니 넓은 포전을 앞에 펼쳐고 양지바른 곳에 규모있게 들어앉은 농촌마을이 한눈에 안겨왔다.

마을중심에 있는 어머니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모신 미술작품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는 연구실, 어린이들의 마음에 꼭 들도록 멋지게 지은 유치원이며 탁아소,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농촌살림집들...

우리를 안내하던 초급일군인 조영일동무는 여기가 지난날에는 산골치고도 아주 궁벽한 산골이었다고, 그러했던 농장에 어머니수령님께서 찾아오시어 천지개벽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었다고 말하였다.

어머니수령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송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이곳 농장원들은 제손으로 자기들의 고장을 더 잘 꾸릴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한결같이 펼쳐나 마을을 사회주의농경으로 꾸려놓았다.

우리는 작업반원들을 돌아보았다. 농악무경연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여 상으로 받았다는 많은 악기들을 차려놓은 농업과학기술지식전진실도 멋들어지고 수백마리의 로기가 옥실거리며 소기우리로 흥미를 끌었다. 땅우에서는 푸르싱싱한 남새를 지레우며 그밑에서는 배지를 거를수 있게 합력적으로 꾸려진 온실 또한 감관을 자아냈다. 마을을 돌아보던 우리는 김원농장원들의 가정에도 둘러보았다. 인민군후방가족담게 작업반농사일이 언제나 앞장선다는 김원농장원에 대한 이야기도 더욱 좋았지만 후날 군사복무를 마친 아들이 변모된 마을에 와보면 깜짝 놀랐겠지라고 웃음짓는 안주인의 말이 더욱 흐뭇하게 들려왔다.

우리와 헤어지기에 앞서 작업반장 지금철동무는 말하였다. **《우리는 분방에서 작업반마을을 사회주의농경으로 더욱 훌륭히 꾸리려니 후에 다시 한번 찾아오십시오.》**

특파원기자 김천일

을 쟁취하여 상으로 받았다는 많은 악기들을 차려놓은 농업과학기술지식전진실도 멋들어지고 수백마리의 로기가 옥실거리며 소기우리로 흥미를 끌었다. 땅우에서는 푸르싱싱한 남새를 지레우며 그밑에서 배지를 거를수 있게 합력적으로 꾸려진 온실 또한 감관을 자아냈다. 마을을 돌아보던 우리는 김원농장원들의 가정에도 둘러보았다. 인민군후방가족담게 작업반농사일이 언제나 앞장선다는 김원농장원에 대한 이야기도 더욱 좋았지만 후날 군사복무를 마친 아들이 변모된 마을에 와보면 깜짝 놀랐겠지라고 웃음짓는 안주인의 말이 더욱 흐뭇하게 들려왔다.

우리와 헤어지기에 앞서 작업반장 지금철동무는 말하였다. **《우리는 분방에서 작업반마을을 사회주의농경으로 더욱 훌륭히 꾸리려니 후에 다시 한번 찾아오십시오.》**

우리와 헤어지기에 앞서 작업반장 지금철동무는 말하였다. **《우리는 분방에서 작업반마을을 사회주의농경으로 더욱 훌륭히 꾸리려니 후에 다시 한번 찾아오십시오.》**

우리와 헤어지기에 앞서 작업반장 지금철동무는 말하였다. **《우리는 분방에서 작업반마을을 사회주의농경으로 더욱 훌륭히 꾸리려니 후에 다시 한번 찾아오십시오.》**

우리와 헤어지기에 앞서 작업반장 지금철동무는 말하였다. **《우리는 분방에서 작업반마을을 사회주의농경으로 더욱 훌륭히 꾸리려니 후에 다시 한번 찾아오십시오.》**

우리와 헤어지기에 앞서 작업반장 지금철동무는 말하였다. **《우리는 분방에서 작업반마을을 사회주의농경으로 더욱 훌륭히 꾸리려니 후에 다시 한번 찾아오십시오.》**

우리와 헤어지기에 앞서 작업반장 지금철동무는 말하였다. **《우리는 분방에서 작업반마을을 사회주의농경으로 더욱 훌륭히 꾸리려니 후에 다시 한번 찾아오십시오.》**

우리와 헤어지기에 앞서 작업반장 지금철동무는 말하였다. **《우리는 분방에서 작업반마을을 사회주의농경으로 더욱 훌륭히 꾸리려니 후에 다시 한번 찾아오십시오.》**

우리와 헤어지기에 앞서 작업반장 지금철동무는 말하였다. **《우리는 분방에서 작업반마을을 사회주의농경으로 더욱 훌륭히 꾸리려니 후에 다시 한번 찾아오십시오.》**

우리와 헤어지기에 앞서 작업반장 지금철동무는 말하였다. **《우리는 분방에서 작업반마을을 사회주의농경으로 더욱 훌륭히 꾸리려니 후에 다시 한번 찾아오십시오.》**

우리와 헤어지기에 앞서 작업반장 지금철동무는 말하였다. **《우리는 분방에서 작업반마을을 사회주의농경으로 더욱 훌륭히 꾸리려니 후에 다시 한번 찾아오십시오.》**

직업적 혁명가의 값높은 영예를 빛내이며

오 중 출 청 진 제 1 사 범 대 학 에 서

문도 보내주시고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 참으로 대학에 둘러주신 백두산위인들의 사랑은 끝이 없었다.

우리는 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대학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광학전자기술실과 물리교수법연구실, 전자도서관... 필요한 실험실습비품과 기구들이 딱 들어맞는 40여개에 달하는 실험실습실은 우리를 놀라웠다. 동행한 일군은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어머니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실험기구만도 10여종이나 되고 전국의 여러 교육기관에 보내준 실험기구들도 수없이 많았다. 장군님께서도 기뻐하셨다. 그날 저녁에 장군님께서도 기뻐하셨다. 그날 저녁에 장군님께서도 기뻐하셨다. 그날 저녁에 장군님께서도 기뻐하셨다.

부풀어오르는 걱정을 안고 우리가 들어선 곳은 1200석 강당이었다. 강당에서는 교원들의 과확토론회가 한창이었다. 책상우에 놓인 부피투어운 자료집들과 강의안들을 바라보노라니 학생들을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혁명인재들로 키우기 위해 바친 이곳 교원들의 숨은 노력이 헤아려졌다.

대학에서는 어머니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정치사상교육을 확고히 앞세우고 학생들속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실속있게 벌려왔다. 교정에 깃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러는 진지 교직원, 학생들의 하나같은 마음을 담아 어머니수령님의 태양상과 영성탑, 현지교사관을 존경하고 혁명사적물보존실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하게 꾸려놓았다.

고난의 그 어려운 시기에 어머니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이 깃들여있는 교사와 실험실습실, 실험실습비를 높은 수준에서 훌륭히 보존관리하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왔다. 그러하여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교육자적자질을 소유한 선진시대 교육일군들을 수없이 키워냈다. 시가집 《간절히 소원》과 장편기행문 《함박방에 수놓아진 향도의 자욱을 따라》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글작품들만도 20여편이나 되었다.

대학에서는 자질향상사업을 힘있게 벌려 많은 교원들을 다방면적인 지식과 풍부한 교육경험을 소유한 실력있는 교육자들로 키웠다. 발명전과 《10월 8일모범교수자》증서를 비롯하여 대학이 받은 증서들과 집필한 교과서, 참고서들만도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이 나날에 많은 교원들이 어머니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수령님의 표창장과 사랑의 선물을 수여받았으며 높은 국가수훈자로 자라났다.

대학에서는 자질향상사업을 힘있게 벌려 많은 교원들을 다방면적인 지식과 풍부한 교육경험을 소유한 실력있는 교육자들로 키웠다. 발명전과 《10월 8일모범교수자》증서를 비롯하여 대학이 받은 증서들과 집필한 교과서, 참고서들만도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이 나날에 많은 교원들이 어머니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수령님의 표창장과 사랑의 선물을 수여받았으며 높은 국가수훈자로 자라났다.

대학에서는 자질향상사업을 힘있게 벌려 많은 교원들을 다방면적인 지식과 풍부한 교육경험을 소유한 실력있는 교육자들로 키웠다. 발명전과 《10월 8일모범교수자》증서를 비롯하여 대학이 받은 증서들과 집필한 교과서, 참고서들만도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이 나날에 많은 교원들이 어머니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수령님의 표창장과 사랑의 선물을 수여받았으며 높은 국가수훈자로 자라났다.

대학에서는 자질향상사업을 힘있게 벌려 많은 교원들을 다방면적인 지식과 풍부한 교육경험을 소유한 실력있는 교육자들로 키웠다. 발명전과 《10월 8일모범교수자》증서를 비롯하여 대학이 받은 증서들과 집필한 교과서, 참고서들만도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이 나날에 많은 교원들이 어머니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수령님의 표창장과 사랑의 선물을 수여받았으며 높은 국가수훈자로 자라났다.

대학에서는 자질향상사업을 힘있게 벌려 많은 교원들을 다방면적인 지식과 풍부한 교육경험을 소유한 실력있는 교육자들로 키웠다. 발명전과 《10월 8일모범교수자》증서를 비롯하여 대학이 받은 증서들과 집필한 교과서, 참고서들만도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이 나날에 많은 교원들이 어머니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수령님의 표창장과 사랑의 선물을 수여받았으며 높은 국가수훈자로 자라났다.

대학에서는 자질향상사업을 힘있게 벌려 많은 교원들을 다방면적인 지식과 풍부한 교육경험을 소유한 실력있는 교육자들로 키웠다. 발명전과 《10월 8일모범교수자》증서를 비롯하여 대학이 받은 증서들과 집필한 교과서, 참고서들만도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이 나날에 많은 교원들이 어머니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수령님의 표창장과 사랑의 선물을 수여받았으며 높은 국가수훈자로 자라났다.

대학에서는 자질향상사업을 힘있게 벌려 많은 교원들을 다방면적인 지식과 풍부한 교육경험을 소유한 실력있는 교육자들로 키웠다. 발명전과 《10월 8일모범교수자》증서를 비롯하여 대학이 받은 증서들과 집필한 교과서, 참고서들만도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이 나날에 많은 교원들이 어머니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수령님의 표창장과 사랑의 선물을 수여받았으며 높은 국가수훈자로 자라났다.

대학에서는 자질향상사업을 힘있게 벌려 많은 교원들을 다방면적인 지식과 풍부한 교육경험을 소유한 실력있는 교육자들로 키웠다. 발명전과 《10월 8일모범교수자》증서를 비롯하여 대학이 받은 증서들과 집필한 교과서, 참고서들만도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이 나날에 많은 교원들이 어머니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수령님의 표창장과 사랑의 선물을 수여받았으며 높은 국가수훈자로 자라났다.

대학에서는 자질향상사업을 힘있게 벌려 많은 교원들을 다방면적인 지식과 풍부한 교육경험을 소유한 실력있는 교육자들로 키웠다. 발명전과 《10월 8일모범교수자》증서를 비롯하여 대학이 받은 증서들과 집필한 교과서, 참고서들만도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이 나날에 많은 교원들이 어머니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수령님의 표창장과 사랑의 선물을 수여받았으며 높은 국가수훈자로 자라났다.

대학에서는 자질향상사업을 힘있게 벌려 많은 교원들을 다방면적인 지식과 풍부한 교육경험을 소유한 실력있는 교육자들로 키웠다. 발명전과 《10월 8일모범교수자》증서를 비롯하여 대학이 받은 증서들과 집필한 교과서, 참고서들만도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이 나날에 많은 교원들이 어머니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수령님의 표창장과 사랑의 선물을 수여받았으며 높은 국가수훈자로 자라났다.

대학에서는 자질향상사업을 힘있게 벌려 많은 교원들을 다방면적인 지식과 풍부한 교육경험을 소유한 실력있는 교육자들로 키웠다. 발명전과 《10월 8일모범교수자》증서를 비롯하여 대학이 받은 증서들과 집필한 교과서, 참고서들만도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이 나날에 많은 교원들이 어머니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수령님의 표창장과 사랑의 선물을 수여받았으며 높은 국가수훈자로 자라났다.

대학에서는 자질향상사업을 힘있게 벌려 많은 교원들을 다방면적인 지식과 풍부한 교육경험을 소유한 실력있는 교육자들로 키웠다. 발명전과 《10월 8일모범교수자》증서를 비롯하여 대학이 받은 증서들과 집필한 교과서, 참고서들만도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이 나날에 많은 교원들이 어머니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수령님의 표창장과 사랑의 선물을 수여받았으며 높은 국가수훈자로 자라났다.

달성한 성과는 이뿐이 아니었다. 기숙사호실들까지 돌아보며 교직원, 학생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온갖 조치를 취해주시고 어머니수령님의 사랑을 현실로 꽃피워주시는 후방정리부서 일군들과 직원들의 숨은 노력으로 규모있게 들어앉은 4개 호동의 기숙사여 아담하게 꾸려진 식당, 실리가 큰 태양열온실과 목욕탕, 그 덕을 토포하고있는 남새포전들과 부엌기질들...

사범대학은 문화생활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어머니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체육경기대회를과 예술축제들에서도 우승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교직원, 학생들이다. 번째지려는 20여개에 달하는 우승컵들과 메달들, 전국적인 범위의 예술축제들과 노래경연, 문예작품전시모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문학예술작품들...

대학의 그 어디에 어머니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이 깃들여있고 직업적혁명가의 값높은 영예와 믿음에 보답하려는 이곳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의 불타는 열정이 낳은 자랑스런 성과들이 한가득 차있었다.

우리의 생각은 깊었다. 어머니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핌이 있었기에 오중출청진제1사범대학은 오늘 국가훈장 제1급을 수여받은 2종26호모범대학으로, 그 존한 교원력량과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춘 조국의 믿음직한 교육양성기지로 자라날수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하기에 학장 허창철동무는 지난 40년동안 대학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로정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며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대학의 전체 일군들과 교직원들은 어머니수령님의 유훈대로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오중출청진의 선진시대 혁명인재들을 많이 키워내어 오늘의 이영에, 이 영광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굳게 확인한다. 오중출청진제1사범대학이 어머니수령님의 송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선진시대 교육자격을 키워내는 한결같은 언젠나 빛나는 자욱만을 새겨나가리라 믿는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은남**

우리의 생각은 깊었다. 어머니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핌이 있었기에 오중출청진제1사범대학은 오늘 국가훈장 제1급을 수여받은 2종26호모범대학으로, 그 존한 교원력량과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춘 조국의 믿음직한 교육양성기지로 자라날수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생각은 깊었다. 어머니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핌이 있었기에 오중출청진제1사범대학은 오늘 국가훈장 제1급을 수여받은 2종26호모범대학으로, 그 존한 교원력량과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춘 조국의 믿음직한 교육양성기지로 자라날수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생각은 깊었다. 어머니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핌이 있었기에 오중출청진제1사범대학은 오늘 국가훈장 제1급을 수여받은 2종26호모범대학으로, 그 존한 교원력량과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춘 조국의 믿음직한 교육양성기지로 자라날수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생각은 깊었다. 어머니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핌이 있었기에 오중출청진제1사범대학은 오늘 국가훈장 제1급을 수여받은 2종26호모범대학으로, 그 존한 교원력량과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춘 조국의 믿음직한 교육양성기지로 자라날수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생각은 깊었다. 어머니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핌이 있었기에 오중출청진제1사범대학은 오늘 국가훈장 제1급을 수여받은 2종26호모범대학으로, 그 존한 교원력량과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춘 조국의 믿음직한 교육양성기지로 자라날수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생각은 깊었다. 어머니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핌이 있었기에 오중출청진제1사범대학은 오늘 국가훈장 제1급을 수여받은 2종26호모범대학으로, 그 존한 교원력량과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춘 조국의 믿음직한 교육양성기지로 자라날수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생각은 깊었다. 어머니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핌이 있었기에 오중출청진제1사범대학은 오늘 국가훈장 제1급을 수여받은 2종26호모범대학으로, 그 존한 교원력량과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춘 조국의 믿음직한 교육양성기지로 자라날수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통상을 찾아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민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통상을 찾아 28일 김진치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단원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정생활을 바치시었으며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주교육발전이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께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그의 통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우리의 가슴은 뜨거웠다. 언제인가는 대학생들의 소박한 예술소품공연을 몹소 보아주시며 아주 잘한다고 평양까지 부르시어 공연을 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고 또 언제인가는 대학학장을 평양에서 열리는 대학의 주석단에 불러주시고 친히 만나시어 정말 큰일을 하였고 분에 넘친 치하의 말씀을 해주신 어머니수령님이시었다.

대학이름을 오중출청진제1사범대학으로 부르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고 창립기념일을 맞으며 당중앙위원회 축하

가는것은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의 공평한 지향으로 되고 있다고 하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맞은 올해에 강성대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그는 라오스와 조선사이의 관계는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맺어진 동지적관계라고 하면서 두 나라 친선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 확신을 표명하였다.

분통 찢마니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성원,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인민혁명당 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교향집을 찾은 대표단 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군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정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대표단은 김일성종합대학 전 자로서만, 수영관과 당장전사적관, 국제친선전람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방직기계공장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가 라오스인민혁명당 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는 28일 민수대의 사당에서 분통 찢마니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성원,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인민혁명당 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대화를 하였다.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인민의 자주주권의자들의 고집압살책동속에서도 모든 부문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카이순 풀비한동지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 주신 라오스와 조선사이의 친선적인 친선관계를 발전시켜나

가는것은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의 공평한 지향으로 되고 있다고 하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맞은 올해에 강성대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그는 라오스와 조선사이의 관계는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맺어진 동지적관계라고 하면서 두 나라 친선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 확신을 표명하였다.

분통 찢마니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성원,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인민혁명당 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교향집을 찾은 대표단 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군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정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대표단은 김일성종합대학 전 자로서만, 수영관과 당장전사적관, 국제친선전람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방직기계공장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라오스인민혁명당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분통 찢마니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성원,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인민혁명당 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교향집을 찾은 대표단 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군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정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대표단은 김일성종합대학 전 자로서만, 수영관과 당장전사적관, 국제친선전람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방직기계공장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도이칠란드사회민주당출신 연방의회 의원일행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요한네스 플루그 도이칠란드 사회민주당출신 연방의회 의원 일행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교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이 력사의 집에 깃들여있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

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정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봉의 혁명사적물들을 참관하였다. 의원일행은 또한 평양방직공장, 김원경명정 평양음악대학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분통 찢마니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성원,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인민혁명당 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교향집을 찾은 대표단 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군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분통 찢마니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성원,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인민혁명당 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교향집을 찾은 대표단 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군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조선중앙

우리 군대와 인민은 리명박역적패당의 악랄한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무자비한 징벌로 짓밟개버릴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에서 기자회견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최근 리명박역적패당이 《천안》호침몰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연계시키면서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광분하고있는 것과 관련하여 2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에는 평양시내 출판보도부문 기자들과 외국특파원들, 주요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주판들, 국제기구대표들이 참가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장 박림수 조선인민군소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리명박역적패당이 꾸며낸 《천안》호침몰사건을 계기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극히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지금 남조선피괴군은 조선시해 우리측 명해에 편입 불법침범하고있으며 이제 곧 미제침략군과 대규모적인 해상합동훈련을 강행하려 하고있다.

군사본계선일대에서 반공화국실리타이제에서 쌍방사이의 대결은 전례없이 첨예화되고있다.

조선시해에서나 비무장지대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그것은 전면전쟁으로 번질수 있다.

그는 남조선의 역적패당이 집권한 이후 남로 악화되어온 북남관계가 이번 《천안》호침몰사건을 계기로 폭발적전열이르게 되었다고 하면서 국방위원회 검열단원 남측지역에 파견하여 그들이 내놓은 《물증》들을 직접 검열확인하려 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괴당국은 뒤가 켜져 남조선 《조사결과》라는것을 일방적으로 고집하면서 현지조사를 한사코 거부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그는 피괴들이 조작한 사건의 진상을 폭로하였다.

그는 《천안》호침몰사건은 철두철미 피괴당이 꾸며낸 남조선, 모략극이라고 하면서

그 근거에 대하여 이렇게 밝히었다. 첫째로,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사건의 《과학적조사》요, 《객관적조사》요 하는것자체가 황당무계한것이기에본다. 우선 《조사단》자체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할수 있게 구성되지 못하고 남조선피괴군부가 이번 조사를 주관한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침몰사건의 장본인으로서 죄고양을 차야 할자들이 조사를 주관했으니 그 결과가 어느 방향으로 흘렸겠는가 하는것은 불보듯 뻔한 리치이다.

《객관적합동조사단》이라는것도 객관적조사를 할수 없는 나라들로 구성되어있다.

여기에는 미국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이 우리와 아직도 교전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이라는 사실은 세계가 다 알고있다.

여기에 참여한 영국, 오스트랄리아, 캐나다 등 나라들도 미국에 추종하여 조선전쟁에 참가하였으니 남조선피괴당국과 공조하고있는 나라들이다.

이런 나라들에서 파견된 성원들이 어느 편에 서서 어떤 결론을 내리려 했겠는가 명백하다.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벌써 남조선피괴당국이 내뿜는 《북남관계》에 동조해나서고 계기되는 《물증》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와 연계시키겠는가 하는데 불붙은 《민중합동조사단》이라는것도 마찬가지이다.

《조사단》에 참가한 민간인들이 초기부터 외부세계와 절저히 차단되어 피괴군합선 《독도》호에서 수감생활을 하듯 하였으며 주요 《조사》에 참가하지조차 못하였다고 한다.

우측쪽이면 《국방부》의 립장에 반대되는 주장을 내놓았다고 하여 《조사단》에서 쫓겨나고 지어 《검찰》에 기소되는 일까지 발생하였는가. 이러한 《조사단》의 활동을

통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얻어냈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그는 《조사결과》가 여러번 바뀌면서 점차 《북 어뢰공격설》에 초점을 맞추어 남조선피괴군에 대한 조사의 비과학성, 비객관성을 말해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사건발생시간과 지점이 여러번 바뀌었다.

처음에는 사건발생시간이 21시 45분이라고 했다가 그후에 여러차례 바뀌면서 21시 16분으로 수정되었다.

또 침몰지점도 암초들이 있는 백령도근처라고 했다가 암초가 없는 곳으로 말을 바꾸었다.

이것은 좌초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결론》을 내리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

《의부도발》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문제에서도 발표가 거듭 바뀌었다.

합선침몰과 관련한 확고한 증언이라고 할수 있는 《천안》호 합선이 처음에는 《의부도발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가 나중에 《있었다.》고 말을 뒤집었다.

피괴군부차제도 처음에는 《북의 공격이라는 어떤 근거도 없고》고 주장하였으나 마지막에 와서는 《북의 어뢰공격》에 의한것으로 발표하였다.

합선에서 살아남은 증언들을 포함하여 침몰초기에 폭발에 의한 물기둥을 본 목격자가 없다고 했다가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백령도에서 한 관시병이 어둠속에서 100m 높이의 백색물기둥을 보았다는 진술을 하게 한것도 이번 사건을 우리와 연관시키기 위한 역적패당의 비렬한 연극이었다.

이러한 반증자료들은 부지기수이다.

뚜렷한 조사를 요구하는 의견에 대해 《검찰조사》따위로 입을 막으며 한것이나 《국민의 알권리》는 뒤전에 밀어붙이고 《정부》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식의 압박

은 남조선국을 꾸며내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가 아닐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남측이 주장하는 《조사결과》라는것을 전면부정하며 단호히 배격한다.

둘째로, 《북의 어뢰공격설》이 남조선이라는것은 남조선당국이 내놓은 《증거물》 그자체가 명백히 증명해주고있다.

이에 대하여 국방위원회 정책국 일인원 리선권 조선인민군대화는 직관물을 통하여 남측이 내놓은 《증거물》을 분석하면서 그것이 한강 남조류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과학적으로, 자료적으로 까뻐하였다.

박림수소장은 이번 《침몰사건》이 북과 남에 있어서 관련누에게 리오운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주기 위해 전군, 전민을 대혁신, 대비약장조로 불러일으키고있다.

평화와 안전은 발전의 전제조건이다.

우리는 목표를 내세우고 모든 힘을 총동원하고있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남조선의 초계함타위를 기습파괴하겠는가.

그는 이 《사건》은 역적패당에게 필요하였다고 하면서 그 진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우선 저들의 반공화국책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이다.

남조선 현 《정부》의 《정책》은 한마디로 지난 시기의 화해와 단합, 협력과 교류를 전면부정하는것이다.

나아가서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파기하자자 것이다.

이로 하여 북남관계는 지금 전쟁국면까지 이르렀다.

그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반발은 폭발적이다.

그렇기때문에 남조선피괴당국자들에게는 우리가 동족이 아닌 《주적》이라는 여론을 남조선인민들속에 확대시키기 위하여 《북 어뢰공격》에 의

한 《침몰사건》이 필요했던것이다.

다음으로 위기에 빠진 《대외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이다.

지금 남조선미국관계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반환》 문제가 논란거리로 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피괴당국의 기존합의대로라면 《전시작전통제권》은 2012년에 남조선에 넘어가게 되어있다.

이렇게 되면 미군의 남조선강점병력이 없어지게 된다.

이것은 《한미동맹만능주의》를 《대외정책》의 기본으로 하고있는 피괴당국에 있어서 치명적인 파격으로 된다.

집권하자마자 지난 《정권》시기에 미국과 체결하였던 《전시작전권반환》합의도 뒤집어엎으려고 획책해온 피괴당국의 책동은 이와 관련되어있다.

이로부터 피괴당국은 《침몰사건》을 우리의 《무력공격》에 의한것으로 꾸며내어 조선반도에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라는 《안보불안》을 부각시키려 하고있다.

그렇게 해야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하루라도 늦추어 남조선강점 미군의 발목을 비껴내놓을수 있다고 타산한것이다.

최근에 평화협정제결문제

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이다.

남조선 현 《정부》의 《정책》은 한마디로 지난 시기의 화해와 단합, 협력과 교류를 전면부정하는것이다.

나아가서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파기하자자 것이다.

이로 하여 북남관계는 지금 전쟁국면까지 이르렀다.

그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반발은 폭발적이다.

그렇기때문에 남조선피괴당국자들에게는 우리가 동족이 아닌 《주적》이라는 여론을 남조선인민들속에 확대시키기 위하여 《북 어뢰공격》에 의

비롯하여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위한 유관국들사이의 논의와 협조가 이어지고있다.

평화를 바라지 않는 남조선피괴당국자들에게는 이러한 흐름을 막기 위한 《충격적인 사건》이 필요하였으니 바로 《천안》호침몰을 여기에 악용하였던것이다.

또한 남조선의 보수세력을 집결시키기 위해서이다.

지금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저들의 악정과 폭압정치로 하여 거세지는 민심의 분노속에 사분오열되고있다.

이것은 피괴당국에 있어서 골치거리가 아닐수 없다.

이로부터 《천안》호침몰을 《북 어뢰공격설》로 몰아붙이고 그것을 통하여 반공화국대결분위기를 고취하여 보수세력을 집결시키려 하는것이다.

그리고 당면한 《지방선거》를 무난히 치르기 위해서이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남조선의 민주세력과 민심은 현 보수집권세력을 크게 위협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이번 《침몰사건》을 잘못 다룬다면 현 《정권》은 위기에서 더이상 벗어날수 없게 되며 명백해지고있다.

때문에 피괴당국은 군부호전팔물을 내세워 이번 《침몰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연계시

킴으로써 정세를 긴장시키고 대결을 고취하여 저들의 패기들을 당성시키는데 유리한 국면을 마련하려 한것이다.

당면하게는 이번 《침몰사건》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이번 사고가 자체부주의로 인한 좌초 혹은 합선의 《로후화》에 의한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그 책임은 그대로 《군통수권자》와 피괴군부우두머리들에게 쏠리리라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침몰사건》원인을 《북의 공격》에 의한것으로 조작해버린 저들의 목숨을 부지할수 있다.

《북 어뢰공격설》을 조작하고 여론을 오도하면서 무모한 전쟁책동에 매달리고있는 역적패당의 기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

《천안》호침몰을 결코 반공화국대결에 광분하고있는것은 우리에게 대한 로물적인 선전효과이며 북남관계를 전쟁상태로 몰아가고 제스스로 무기를 파는 행위로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군의 기치밑에 핵억제력을 강화해온것은 바로 오늘과 같은 첨예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핵무기를 포함한 우리의 강력한 물리적수단은 결코 진멸되거나 보편물이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혁명무력의 본래를 보여줄 때이다.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겠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역적패당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리명박역적패당의 악랄한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무자비한 징벌로 짓밟개버릴것이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우리 군대가 취한 중대조치들을 다시금 통고하고 역적패당이 감히 존엄높은 공화국을 결코 함부로 날뛰던 강력히 대응할것이라는 원칙적립장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조선중앙통신사, 로동신문사, 조선인민군신문사, 민주조선사,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총련, 조선보사, 로씨야 이따르-따스통신사, 중국 신화통신사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다.

박림수소장은 대답에서 《북 어뢰공격설》의 부당성과 남조선피괴당국이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있는 이유를 다시금 명백히 까뻐하였다.

그는 역적패당이 합선침몰원인을 해명하는데서 기본인 가스관조사에 의연하고있으며 북남관계를 대결으로 몰아가고있는데 대하여 준엄히 규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의 본래를 보여줄 때이다.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겠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역적패당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리명박역적패당의 악랄한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무자비한 징벌로 짓밟개버릴것이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우리 군대가 취한 중대조치들을 다시금 통고하고 역적패당이 감히 존엄높은 공화국을 결코 함부로 날뛰던 강력히 대응할것이라는 원칙적립장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조선중앙통신사, 로동신문사, 조선인민군신문사, 민주조선사,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총련, 조선보사, 로씨야 이따르-따스통신사, 중국 신화통신사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다.

박림수소장은 대답에서 《북 어뢰공격설》의 부당성과 남조선피괴당국이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있는 이유를 다시금 명백히 까뻐하였다.

그는 역적패당이 합선침몰원인을 해명하는데서 기본인 가스관조사에 의연하고있으며 북남관계를 대결으로 몰아가고있는데 대하여 준엄히 규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천안》호사건을 유엔안건보장리사회에 상정시켜 우리에게 대한 국제적압박분위기를 조성해보려는 미국의 책동이 극히 무모한 지경에 이르렀고있다.

최근 미국주장관이 일본과 중국, 남조선을 회박하면서 우리를 《천안》호침몰의 《장본인》으로 몰아보려고 술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북조선어뢰공격설》로 누가 어떤 리득을 보는가 하는것만 살펴보아도 진상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작곡이라는것이 명백해진다.

첫째로, 집권 첫째에 대외적으로 나약하다는 평판을 받은 오마비정정부로서는 올해 11월의 국회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번 사건으로 《강한 모습》을 최대한 연출하고있다.

둘째로, 미국은 《북조선위협》을 생동하게 부각시켜 오키나와에서 미군을 몰아내려던 일본의 민주정당정권을 팔팔내 글

복시켰다. 《조사결과》 발표 5월중에도 맞은 리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로, 우리 나라에 대한 국제적투자환경을 파괴하고 우리 경제를 지속적으로 질식시켜보려는 저들의 《화력적내세》정책을 합리화할수 있게 되었다. 넷째로, 중공을 난처한 처지에 빠뜨리고 일본과 남조선을 다시금 저들의 하수인으로 틀어쥘수 있게 되었다.

미국이 제아무리 검은것을 휘젓고도 우리도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미국이 이번 사건을 유엔안건보장리사회에 상정시키겠다고 떠들고있지만 그곳은 2003년 2월 이라크에 대한 포획의 거짓말로 이미 더럽혀진 마당이다. 미국이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위반》으로 삼긴하면서 남조선당국을 내세워 《군사정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주장을 펴고있는것 역시

자제모순이다. 정전협정으로 말하면 미국에 의해 민중이장으로 되어버린 것은 그림자이다. 조사단이 남조선군부를 중심으로 구성된것도 문제이지만 그 조사단이 남조선당국이 일방적으로 선정한것이 때론 몇몇의 외국인을 망라시켜 《국제조사단》이라는 감투를 내건것 역시 문제투성이다.

만약 유엔안건보장리사회가 또다시 미국의 거짓말에 놀라 《천안》호사건의 《조사결과》라는것을 상정문의하기만 해도 그것은 리사회가 우리 인민의 존엄과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는데 동용되는것으로 간주될것이다. 우리가 이 심포를 초강경저지대응조치들을 취하는 경우 그 후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 지게 될것이다.

주제 99 (2010)년 5월 28일

현 양

남조선집권세력이 지금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민심을 회유하려고 갖은 술책을 다 쓰고있다. 그들은 저들의 집권 2년간의 그 무슨 《치적》에 대해 요란스럽게 광고하고있다. 그들의 하나가 저들의 노력으로 《경제가 좋아졌다.》는 허튼 여론을 내뿜고있는것이다. 보수세력이 마치도 저들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고있고 그로 하여 인민생활이 나아지는것처럼 떠들어대고있는것이야말로 민심을 오도하고 반인민적인 통치행위를 위한 한갖 꾀변에 지나지 않는다.

《얼마전 시장에서 남새를 파는 한 상인은 자기는 한자리에서 20년째 장사하는데 요즘처럼 힘든 때가 없다고 말하였다. 모두가 정말 힘들다고 말한다. 먹고 사는 일조차 감당하기 힘든 서민들에게 하루하루는 정말 끔찍하다. 그들은 장보려 나가기도 무섭고 아이들 키가 커가면서 늘어나는 교육비가 더 무섭다 한다. 등 록금등 돈이 없어 자식들을 대학 못보낼가 두렵고 또 자식들의 배를 불러워주기 위한것이 다. 《비정규직기반연장》정

독하든 말든 판계없이 제재와 대응조치부터 서두르며 덤벼치는것도 그 목적이 반대이며 이미 저들은 각본에 따라 움직이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거짓말 한마디로 이라크를 끌고갔을것처럼 조선반도에서도 그럴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만약 유엔안건보장리사회가 또다시 미국의 거짓말에 놀라 《천안》호사건의 《조사결과》라는것을 상정문의하기만 해도 그것은 리사회가 우리 인민의 존엄과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는데 동용되는것으로 간주될것이다. 우리가 이 심포를 초강경저지대응조치들을 취하는 경우 그 후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 지게 될것이다.

주제 99 (2010)년 5월 28일

현 양

남조선집권세력이 지금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민심을 회유하려고 갖은 술책을 다 쓰고있다. 그들은 저들의 집권 2년간의 그 무슨 《치적》에 대해 요란스럽게 광고하고있다. 그들의 하나가 저들의 노력으로 《경제가 좋아졌다.》는 허튼 여론을 내뿜고있는것이다. 보수세력이 마치도 저들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고있고 그로 하여 인민생활이 나아지는것처럼 떠들어대고있는것이야말로 민심을 오도하고 반인민적인 통치행위를 위한 한갖 꾀변에 지나지 않는다.

《얼마전 시장에서 남새를 파는 한 상인은 자기는 한자리에서 20년째 장사하는데 요즘처럼 힘든 때가 없다고 말하였다. 모두가 정말 힘들다고 말한다. 먹고 사는 일조차 감당하기 힘든 서민들에게 하루하루는 정말 끔찍하다. 그들은 장보려 나가기도 무섭고 아이들 키가 커가면서 늘어나는 교육비가 더 무섭다 한다. 등 록금등 돈이 없어 자식들을 대학 못보낼가 두렵고 또 자식들의 배를 불러워주기 위한것이 다. 《비정규직기반연장》정

독하든 말든 판계없이 제재와 대응조치부터 서두르며 덤벼치는것도 그 목적이 반대이며 이미 저들은 각본에 따라 움직이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거짓말 한마디로 이라크를 끌고갔을것처럼 조선반도에서도 그럴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만약 유엔안건보장리사회가 또다시 미국의 거짓말에 놀라 《천안》호사건의 《조사결과》라는것을 상정문의하기만 해도 그것은 리사회가 우리 인민의 존엄과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는데 동용되는것으로 간주될것이다. 우리가 이 심포를 초강경저지대응조치들을 취하는 경우 그 후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 지게 될것이다.

주제 99 (2010)년 5월 28일

현 양

남조선집권세력이 지금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민심을 회유하려고 갖은 술책을 다 쓰고있다. 그들은 저들의 집권 2년간의 그 무슨 《치적》에 대해 요란스럽게 광고하고있다. 그들의 하나가 저들의 노력으로 《경제가 좋아졌다.》는 허튼 여론을 내뿜고있는것이다. 보수세력이 마치도 저들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고있고 그로 하여 인민생활이 나아지는것처럼 떠들어대고있는것이야말로 민심을 오도하고 반인민적인 통치행위를 위한 한갖 꾀변에 지나지 않는다.

《얼마전 시장에서 남새를 파는 한 상인은 자기는 한자리에서 20년째 장사하는데 요즘처럼 힘든 때가 없다고 말하였다. 모두가 정말 힘들다고 말한다. 먹고 사는 일조차 감당하기 힘든 서민들에게 하루하루는 정말 끔찍하다. 그들은 장보려 나가기도 무섭고 아이들 키가 커가면서 늘어나는 교육비가 더 무섭다 한다. 등 록금등 돈이 없어 자식들을 대학 못보낼가 두렵고 또 자식들의 배를 불러워주기 위한것이 다. 《비정규직기반연장》정

브라질 단체들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0돛기념 불래전 발행

6.15 북남공동선언발표 10돛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돛기념 브라질준비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연대성 브라질위원회가 20일 공동으로 불래전 《6.15 통일시대》를 발행하였다.

불래전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인 2000년 6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양에서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 협력과 교류가 추진되고 통일지향적인 결실들이 맺어지는데 대하여, 북과 남이 공동으로 문화행사를 진행했고 국제적기초에 선수들의 공동으로 입장하여 조선은 하나라는것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한데 대하여,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오상배합이 활발히 벌어지는데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북남관계에서의 이 놀라운 진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힘과 협력을

선언은 채택되자마자 조선의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열렬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반세기이상 적대시하여오던 북과 남사이의 관계가 불신과 대결의 판계로부터 화해와 협력의 판계로 전환되었다. 불래전은 북과 남사이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대화와 실무적추진들이 진행되고 겨레의 단합과 협력을 우선시하는 립장에서 공동의 합의들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족의 단합과 통일, 협력과 교류가 추진되고 통일지향적인 결실들이 맺어지는데 대하여, 북과 남이 공동으로 문화행사를 진행했고 국제적기초에 선수들의 공동으로 입장하여 조선은 하나라는것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한데 대하여,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오상배합이 활발히 벌어지는데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북남관계에서의 이 놀라운 진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힘과 협력을

선언은 채택되자마자 조선의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열렬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반세기이상 적대시하여오던 북과 남사이의 관계가 불신과 대결의 판계로부터 화해와 협력의 판계로 전환되었다. 불래전은 북과 남사이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대화와 실무적추진들이 진행되고 겨레의 단합과 협력을 우선시하는 립장에서 공동의 합의들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족의 단합과 통일, 협력과 교류가 추진되고 통일지향적인 결실들이 맺어지는데 대하여, 북과 남이 공동으로 문화행사를 진행했고 국제적기초에 선수들의 공동으로 입장하여 조선은 하나라는것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한데 대하여,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오상배합이 활발히 벌어지는데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북남관계에서의 이 놀라운 진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힘과 협력을

선언은 채택되자마자 조선의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열렬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반세기이상 적대시하여오던 북과 남사이의 관계가 불신과 대결의 판계로부터 화해와 협력의 판계로 전환되었다. 불래전은 북과 남사이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대화와 실무적추진들이 진행되고 겨레의 단합과 협력을 우선시하는 립장에서 공동의 합의들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족의 단합과 통일, 협력과 교류가 추진되고 통일지향적인 결실들이 맺어지는데 대하여, 북과 남이 공동으로 문화행사를 진행했고 국제적기초에 선수들의 공동으로 입장하여 조선은 하나라는것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한데 대하여,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오상배합이 활발히 벌어지는데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북남관계에서의 이 놀라운 진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힘과 협력을

선언은 채택되자마자 조선의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열렬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반세기이상 적대시하여오던 북과 남사이의 관계가 불신과 대결의 판계로부터 화해와 협력의 판계로 전환되었다. 불래전은 북과 남사이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대화와 실무적추진들이 진행되고 겨

